

사고다발 스쿨존 안전시설 미비

행안부, 민·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전북은 이리모현·한솔초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안전시설 미비가 162건으로 71%를 차지했다.

사고다발 스쿨존 36곳의 경우 서울은 공학·구일·업주·자곡·대치초교와 보람나무 어린이집이다. 부산은 양정·온천초교, 대구는 봉덕·합지

초교, 인천은 부곡, 부원, 청라초교다. 광주에는 장산·오정·신창초교, 대전은 새록새록 어린이집, 별나라·대전시립 어린이집과 동대전초교다. 경기도는 중부·법박·본원·석수·덕인·동인·시화초교, 강원은 정운초교, 충북은 남평·복대·봉명고북초교와 가락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고북초교, 전북은 이리모현·한솔초교, 전남은 서해·연산초교와 고흥동초교였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스쿨존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교차로 설치 부적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노면표시, 안전표지와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148건(65%)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필

요하고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81건(35%)에 대해서는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한다.

또 교육부, 경찰청, 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교육부, 학점인정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도 내년 3월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케이무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점 및 학위 취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케이무크를 이수해도 대학이 학점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일반인도 케이무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계 학습과정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를 신설했다.

또 케이무크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를 신설했다.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케이무크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전주대 직업치료학과가 2018년 상반기 세계직업치료사연맹(WFOT) 교육과정 인증과 동시에 한국직업치료교육평가원에서 인증하는 최우수 교육인증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

전주대 직업치료학과, 전국 4년제 최초 국내외 동시 교육 인증

전주대 직업치료학과는 2018년 상반기 세계직업치료사연맹(WFOT) 교육과정 인증과 동시에 한국 직업치료교육평가원에서 인증하는 최우수 교육인증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국내외 직업치료관련 교육인증을 동시에 받은 것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초다.

두 교육인증은 교원의 자질과 교육과정뿐만 학교시설과 학생 복지, 교육성과까지 교육 관련 전 부분을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한다. 전주대는 두 교육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하며 높은 교육 수준을 다시 한 번 입증

했다.

특히, 인증심사평가원에서는 전주대 직업치료학과가 진행하는 선후배 그룹스터디, 캡스톤디자인, 임상사례 현장실습 등 비교과 활동프로그램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치료사로서 필요한 실무능력, 인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전주대 유인규 교수(직업치료학과 학과장)는 "세계직업치료사연맹 및 한국직업치료교육평가원 교육인증절차는 전주대학교 직업치료학과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학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말했다.

전주대는 2010년 직업치료학과를 개설하여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습모임 및 임상현장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 졸업생은 대학병원,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소, 의료기기센터, 교육 및 연구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WFOT로 인준으로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전주대 직업치료학과는 향후 7년간 교육인증이 유지되며 2025년에 재인증을 받게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신북방정책 거점 폴란드와 교류 확대

최근 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실크로드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폴란드로 교류 영역을 확장했다.

전북대는 폴란드 바르샤바와 그단스크를 방문하여 한국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등의 지원을 통해 현지 주요대학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명숙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 등 방문단은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대학을 방문해 전북대의 우수한 농생명 과학 분야 및 IT, 수의학 분야와 의학 분야를 소개하고 교육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단스크대학교 피오트르 스텝노브스키(Piotr Stepnowski) 부총장은 MOU 체결을 통해 빠르게 협력할 수 있는 교환교수, 교환학생,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과 이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유럽 우수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폴란드 내에서 한국학 교육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포즈난 대학교는 한국어 교육 지원과 교수,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 대학 간 실질적 교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오는 10월 대학이 개최하는 세계한국학비엔날레에 포즈

난 대학 한국학 전공 교수 등을 초청, 인문학 등의 교류를 통한 학술교류와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최성주 폴란드 대사는 "최근 폴란드는 해마다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최근 신설된 연간 200여명 규모의 워킹홀리데이나 대학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로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호 총장은 "이번 방문을 통한 동유럽 지역으로의 교류 확대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기업의 유럽 진출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폴란드의 도전정신이 우리학생들을 모범생을 넘어서 모험생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시작

내달 7일까지 접수·변경신청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해야 한다. 다만 원서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

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 시험지구 교육청은 6곳이며, 관할지역은 ▲전주교육지원청-전주, 완주, 진안, 무주 ▲군산교육지원청-군산 ▲익산교육지원청-익산 ▲정읍교육지원청-정읍, 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 장수, 임실, 순창 ▲김제교육지원청-김제, 부안이다.

수능 원서접수 시 지원자는 응시수수료,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시각장애·청각장애·뇌병변 및 운동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학생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방문하여 접수한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2만55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올해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2만여명이 응시원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